

晩翁 徐命瑞의 讀書段階論 比較研究

김 상 호*

< 목 차 >

- | | |
|---------------------------|---------------------------|
| I. 緒 言 | 3. 陸世儀의 讀書三節 |
| II. 晩翁 讀書段階論의 內容 | 4. 栗谷과 牛溪의 讀書次第 |
| 1. 晩翁의 讀書觀 | IV. 朝鮮 當代 儒學者의 讀書次第論과의 差異 |
| 2. 讀書段階의 區分과 必讀書의 選定 | 1. 林象德의 讀書次第와 讀書規模 |
| III. 中國 및 朝鮮 先儒 讀書次序論의 影響 | 2. 黃德吉의 讀書次第圖 |
| 1. 朱子의 循序漸進 | 3. 姜必孝의 讀書次第 |
| 2. 程端禮의 讀書分年日程 | V. 結 言 |
| | 參考文獻 |

I. 緒 言

晩翁 徐命瑞(1711-1795)는 조선 후기 영조 정조년간의 학자로 관직은 知中樞府使에 이르렀다. 그의 찬술을 모아 엮은 晩翁集은 光武년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는데, 권 3 學約圖 제 1 하편에서 그의 독서론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독서연구는 당대 저술간행된 출판물의 체계서지적 분석과 여러 문집에 수록된 독서론의 내용분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順菴, 澤堂, 茶山, 炯庵 등 주요 인물의 독서론에 대한 연구논문¹⁾과 당대 유학자의 독서경향에 대한 선행연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1) 沈鶴俊, "下學指南에 나타난 順菴의 讀書觀," 韓國學, 19집(1978. 12), pp.18-33
尹炳泰, "澤堂 李植과 그의 讀書觀," 도협월보, 19권 10호(1978. 12), pp.11-14
金泳, "丁茶山の 讀書觀," 江原大學校 論文集, 15집(1981), pp.103-117

구²⁾가 모두 후자의 방법에 따른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의 독서론은 대개 독서의의, 독서순서, 독서방법의 세 가지 범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독서론은 朱子の 독서법을 충실히 수용하여 이를 전체 인용하거나 주석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독서단계 및 필독서선정의 내용을 다루는 독서순서의 범주에 있어서는 朱子の 논의가 원칙론에 불과하고, 선정문헌의 범위가 중국문헌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조선 유학자의 독자적인 논의를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晚翁 독서론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중국 및 조선 先儒의 독서차서론, 조선 후기 학자의 독서차제론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만옹의 독서단계론 전개 및 필독서목록 선정의 독자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II. 晚翁 讀書段階論의 內容

1. 晚翁의 讀書觀

조선시대 유학자의 독서관은 본질적으로 儒家의 독서가치론에 바탕하는 것으로 독서란 일상사의 주된 일과이며 도를 깨우쳐 군자가 되고 입신 출세를 하는 방편으로 생각되었다. 晚翁은 독서란 初學者에게 있어서 持身, 應事, 接物과 아울러 일용간에 행해야 할 네가지 주요 덕목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기술하였다.³⁾ 이러한 독서관의 형성은 국가의 승유책에 따른 유학 중심의 교육 및 과거제도와 朱子 독서법의 절대적인 수용에 기인하는 것이다.

¹⁾ 李德懋의 讀書論, 東方學志, 36, 37집(1983. 6) pp.109-127

²⁾ 金相浚, "朝鮮朝 儒學者의 讀書傾向," 國會圖書館報, 208호(1990. 3) pp.39-54

³⁾ 徐命瑞, 晚翁集, 卷 3 圖說

晚翁의 독서관은 讀義, 讀序, 讀法으로 3구분하고 있는 그의 讀書圖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여기에서 朱子와 栗谷, 牛溪, 程子 등의 글을 인용하여 독서의 의의와 순서, 방법에 대한 원칙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독서의 의의에 대해서 晚翁은 사람이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치를 궁구해야 하는데 성현들이 마음을 쓴 지취와 본받거나 경계해야 할 선악이 모두 책에 담겨 있는바, 그 궁리의 요체가 바로 독서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先儒의 글을 빌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독서의 순서에 대해서는 정신이 강한 자는 博取하고, 쇠한 자는 반드시 節約해야 한다는 程子の 말과 小學을 먼저 읽고 다음으로 大學, 論語, 中庸, 詩經, 禮記, 書經, 易經, 春秋를 읽으며, 近思錄, 家禮, 心經, 二程全書, 朱子語類 등을 간간히 정독하고, 여력이 있으면 또한 역사서를 읽어 고급의 일에 통달해야 한다는 栗谷의 글을 인용하고, 그밖에 伊洛淵源錄, 理學通錄, 通鑑, 續綱目, 皇明通記 등의 필독서를 열거하였다.

독서의 방법을 논함에 있어서는 朱子와 栗谷의 글을 인용하여 독서는 순서에 따르고 정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독서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致知하고 실천의 방도를 구해야지 만약 입으로만 읽을 뿐 마음으로 체득하지 않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대로이고 나는 나대로일뿐이니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경계하였다.

이와 같은 晚翁의 독서관은 先儒, 특히 朱子와 栗谷의 독서관에서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실로 당대 유학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晚翁이 독서순서에 대한 내용으로 初學圖와 學約圖를 저술하고, 학문을 하는 요체와 덕업을 진전하는 순서를 정하여 스스로 경계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는바, 晚翁의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독서를 위한 방편의 마련에 관심이 더욱 각별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2. 讀書段階의 區分과 必讀書의 選定

독서를 함에 있어서 독서자의 연령이나 개인차에 따라 이해하고 섭렵할 수 있는 책의 내용이 다르고 독서의 방법 또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문에 뜻을 두고 독서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과정을 정하고 그대로 정진해야 하는데, 모름지기 많은 先儒가 독서법을 논함에 있어 定程 循序를 처음의 자리에 위치한 것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晩翁은 그의 저술 學約圖에서 독서의 단계를 句讀, 字書, 誦讀, 講貫, 涉獵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연령층을 기준으로 한 晩翁의 독서단계는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6세부터 15세까지의 誦讀 단계, 16세부터 25세까지의 講貫 단계, 26세부터 35세까지의 涉獵 단계 등 독서기본단계에 독서예비단계인 6세 입학이전의 句讀 및 字書 단계, 35세이후의 經學 단계를 더한 5단계로 구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필독서의 섭렵이 끝나고 德業이 崇廣하는 35세이후의 독서에 대해서는 단지 經學에 쫓아 踐履 操守할 것만을 언급하였을 뿐이므로 여기서는 晩翁이 필독서를 선정한 句讀 및 字書, 誦讀, 講貫, 涉獵 단계의 독서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1) 句讀 및 字書 단계

晩翁 독서론의 句讀 및 字書 단계는 小學에 들어가기 전인 6세이전의 문자를 배우는 시기로서 영아 및 유아단계의 독서를 말한다. 句讀하여야 할 책으로는 小學이 있으나 그 글이 艱澁하여 幼兒가 읽기 어려우므로 晩翁 자신이 초록한 古語 屬韻爲 幼讀 4編을 그 대신 먼저 익히고 실천할 책으로 선정하였다.

字書로서 읽고 배울 책으로는 세간에서 많이 쓰이는 周興嗣 千字文 楷本도 익힐만 하나, 晩翁 자신의 선조인 四佳 徐居正 저술의 類合 繕寫刻本을 교재로 선정하여 한번 읽고 한번 쓰기를 수개월동안 반복토록 할 것을 권장하였다.

2) 誦讀단계

문자를 깨우치고 학교에 입학하여 비로소 실질적인 독서를 시작하는 誦讀단계는 6세부터 15세까지의 10년간이다. 晚翁은 이 때가 인간으로서 悟性, 즉 판단력은 부족하나 記性, 즉 기억력은 매우 왕성한 시기임을 지적하고, 마땅히 경서와 역사서를 과정에 따라 정독해야 하며, 반드시 綱을 먼저하고目を 뒤로 하며 經을 먼저하고 註를 뒤로 하는데, 여력이 있으면 功수를 抄誦하되 正學으로서 바탕을 삼고 方外에 流走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이 기간동안 읽어야 할 필독서목록에는 字書, 論語, 詩歌, 書經, 孝經, 孟子, 小學, 中庸, 大學, 周易, 史略, 戴禮, 春秋, 周禮, 綱目, 儀禮, 詩經, 家禮, 太極道西銘, 古詩, 古文, 類集, 時文, 外家 등 경사자집의 개별서명 및 주제항목을 선정하였다.

개별문헌 및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사항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小學은 숙독해야 할 문헌으로 注記하였으며, 論語, 孟子, 中庸, 周易은 공히 正文에 한정하되 連誦해야 하고, 大學은 이에 덧붙여 章句까지 읽어야 할 문헌으로 注記했다. 史略은 1권 혹은 2권만을 읽되 少微通鑑으로 계속하고, 綱目は 綱을 먼저하고 王衡通鑑을 취하며, 家禮는 正文만 하되 沙溪備要를 旁攷하고, 太極圖西銘은 心經과 聖學十圖를 兼讀하고 連誦할 것을 注記하였다.

詩文集類에 있어서 먼저 古詩는 離騷 및 陶淵明, 杜甫를 비롯한 唐宋 대가의 佳作를 連誦하고, 古文은 左國 및 班固, 司馬遷, 韓愈, 柳宗元, 歐陽修, 曾鞏, 程子, 朱子の 글을 抄讀하고, 時文은 詩와 賦, 表, 肅廟전후의 疑, 義, 策, 論, 명작 수백편을 각기 수십번 連誦하며, 類集은 事文類聚, 彙語, 淵鑑類函를 보고, 文集은 二程全書, 性理大全, 大學衍義衍義補, 心經發揮, 聖學輯要를 먼저 보고, 語類, 語錄 및 五先生言行錄, 牛溪의 書室儀, 栗谷의 自警文과 擊蒙要訣를 보고, 다음으로 중국의 유학자 陸世儀의 思辨錄을 종신토록 讀誦 할 것을 注記하였다.

外家の 서적은 管子, 楊子, 老莊 문헌을 참고하고, 靈樞錦囊과 法華經, 金剛經, 楞嚴經, 그리고 孫子, 吳子의 문헌 또한 抄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誦讀단계의 독서내용은 유가적 독서관에 충실한 小學과 四書五經 및 유가서 역사서 先儒의 고금 명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道家와 佛家의 문헌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기할만한 점은 牛溪와 栗谷, 陸世儀의 書室儀, 擊蒙要訣, 思辨錄을 필독서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문헌에는 독서과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로써 본다면 晚翁은 학동들의 독서에 있어서 비교적 다양한 내용의 독서를 권장하였고, 독서단계론에 따른 체계적이고 성실한 독서의 실천을 무엇보다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講貫단계

講貫단계는 16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기 10년간으로 晚翁은 이 때가 소년기와 달리 기억력이 떨어지나 판단력은 발달하는 시기로 보았다. 따라서 이 때에는 반복하여 독서하고 의리를 깊이 연구해야 하는데, 개인능력에 따라서는 광범위하게 독서하거나 그와 반대로 經書나 文章 功令 經濟분야 가운데 적성에 맞는 것을 하나 정해 전문적으로 연마해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晚翁은 이 기간동안 읽어야할 필독도서목록에 四書六經을 비롯해 史記, 性理諸書, 古詩文, 字彙, 時文, 類集, 典禮, 經濟, 醫, 兵, 刑에 속하는 문헌들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기술사항을 살펴보면, 四書六經은 大全과 함께 小註 或問을 아울러 읽으며, 性理諸書는 大全과 함께 小註 및 송나라 명나라 조선 유학자의 劄義를 아울러 읽고, 類集은 文獻通考, 大學衍義, 古今世說, 名臣錄과 東國文獻, 文集 및 館閣 名作과 班固, 司馬遷이래의 全史, 漢이래의 叢書, 管子와 莊子 이하 제 文集과 稗史이하 傳記 또한 通看함이 가하나 浸淫해서는 안된다고 注記하였다. 典禮는 歷代六典六禮 및 禮樂誌, 동국의 典律書를 보고, 經濟는

天文, 地誌, 農田, 水利河渠 등의 서적을 精覽하고, 兵書는 武備志 등 서적으로 그 法制를 연구함이 가하며, 醫書는 李時珍의 康熙年 本草綱目, 刑書는 明律과 東典, 具氏通編, 無冤錄 등을 읽을 것을 권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講貫 단계의 독서내용은 경사지집의 전 주제분야에 걸친 방대한 양의 문헌을 개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誦讀 단계의 독서에 비해서는 같은 문헌이라 하더라도 正文 뿐만이 아닌 註와 或問까지도 천착하여 읽어 나갈 것을 권장하고, 子部의 경우 外家의 사상서 보다는 중국 및 조선의 문물제도서를 필독서로 다수 선정한 것이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겠다.

4) 涉獵 단계

涉獵 단계는 26세부터 35세까지의 10년간으로 晚翁은 誦讀 및 講貫 단계의 독서를 기초로 방대한 양의 문헌을 섭렵하는 필독도서의 독서완성단계로 보았으며, 35세 이후부터는 德業이 崇廣하므로 섭렵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한 방향에 전념하여 닦아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涉獵 단계에서의 필독도서목록에는 四書六經을 비롯해 性理諸書, 22史, 古詩文, 時文, 類集, 典禮의 문헌들을 선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기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四書六經의 독서는 대소 註義와 箋疏, 제 儒家의 說을 망라하고, 性理諸書는 圖書編과 제 儒家의 全書를 포함하며, 22史의 경우는 全史뿐 아니라 대소의 野史와 稗史도 포함하고, 古詩文은 歷代의 全書와 全詩, 傳記를 포함하고, 時文은 功令 및 諸家의 각 文體를 포함하고, 類集은 고금의 文集과 類書를 포함하고, 典禮는 講貫 단계의 문헌들을 보다 넓고 정밀하게 독서할 것을 註記하였다.

이와 같이 晚翁은 涉獵 단계에서는 그 항목에 속하는 관계문헌들을 망라적으로 읽어 나가는 매우 방대한 양의 독서를 권유하고 있다. 다만 주제별로 보면 誦讀 및 講貫 단계에 비해 경사지집의 문헌 중 外家 및 문물제도의 서적보다는 文章類의 독서를 강조하였다.

Ⅲ. 中國 및 朝鮮 先儒 讀書次序論의 影響

1. 朱子の 循序漸進

朱子の 독서법은 朱子語類 권 10·11의 讀書法 상·하를 비롯해 朱子大全 권 74 讀書之要, 朱子讀書法 4권, 性理大全 권53 讀書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저술에는 독서의의 및 순서에 대한 朱子の 언급도 적지 않으나, 熟讀 精思와 같은 독서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자세하다.

朱子の 독서법은 개괄적으로 循序漸進, 熟讀精思, 虛心涵泳, 切己體察, 著緊用力, 居敬持志의 6句로 집약된다.⁴⁾ 여기서 循序漸進이란 선후 완급 즉, 한 책을 통한 다음에 다른 책에 미쳐야 하고, 한 책 내에 있어서는 그 篇, 章, 文句가 역시 각각 차례가 있으므로 이를 지켜야하며, 각자의 역량이 미치는 바에 따라 그 과정을 정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해가되, 자구마다 그 뜻을 구하여, 앞에서 얻지 못하면 감히 그 뒤에서 구하지 않고, 여기에서 통하지 못하면 감히 저기에 뜻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순서에 따라 점진한다면 의리가 정명해지고 쉽게 지나치는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⁵⁾

朱子は 循序漸進하여 독서함을 얕은 곳에서 말미암아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多讀만을 탐해서는 안되고, 항상 자기 역량에 여유가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課程을 세우되 작게 세우고, 반면 功力은 크게 행할 것을 강조하였다.⁶⁾

독서하는 순서에 대해서 朱子は 먼저 大學을 읽어 그 규모를 정하고, 다음에는 論語를 읽어 그 근본을 세우고, 다음에는 孟子를 읽어 그 발월을 보고, 다음에는

4) 張立文, 朱熹思想研究, 中和, 谷風出版社, 1986, pp. 746

5) 朱熹, 朱子大全 卷 74 讀書之要

6) 胡廣 等 奉勅纂, 性理大全 卷 53 讀書法

中庸을 읽어 고인의 미묘처를 구하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四書를 읽어 성현의 뜻을 살핀 연후에 詩, 書, 禮, 樂, 易, 春秋를 읽고, 다음으로 역사서를 읽어 존망치란의 지취를 살피되 史記와 左傳을 먼저 하고, 西漢, 東漢 및 三國志는 却看하며, 通鑑을 보고 여력이 있으면 全史를 보고, 諸子百家書를 읽되 그 절목에는 스스로 차서가 있으니 踰越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⁷⁾

이러한 循序漸進은 결국 각 독서단계마다의 熟讀精思를 요하는 것으로 朱子는 책을 읽음에 있어서 반드시 熟讀하여 그 말이 마치 모두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고, 계속 精思하여 그 뜻이 마치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듯이 해야만 비로소 그런 연후에 얻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⁸⁾

이와 같은 朱子의 독서법은 麗末에 전래된 朱子學이 鮮代 유학자에 의해 보다 발전되었듯이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폭넓게 수용되어 그들의 독서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두말할 나위없으며, 朱子의 循序漸進論이 晚翁의 독서단계론 형성에 끼친 영향 또한 예외는 아닌 것이다.

2. 程端禮의 讀書分年日程

朱子의 循序漸進論에 기초하여 독서단계를 구체화한 것이 元 程端禮(1270-1345)의 讀書分年日程이다. 程端禮는 慶元人으로 字는 敬叔이며 儒學教授를 지냈다. 당시 慶元에는 宋末이래 모두가 陸九淵의 학문을 존상하고 있었으나, 程端禮가 홀로 朱子의 학문을 전하여 배우는 이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그가 朱子의 讀書 6條를 강령으로 하여 엮은 讀書分年日程은 讀書工程 및 進學規定으로서 國子監이 郡縣에 頒示하여 배우는 이들의 법식으로 삼게 하였다.⁹⁾

7) 黎靖德 編, 朱子語類 卷 11 讀書法

8) 朱熹, 前掲書, 卷 74 讀書之要

9) 元史 卷 190 列傳 77 儒學 2

程端禮는 應舉시기인 22세 내지 25세 이전의 독서단계를 첫째 8세 입학전, 둘째 8세 입학후 6내지 7년간, 셋째 15세 志學의 해부터 전반기 3내지 4년간과 19세부터의 중반기 2내지 3년간 그리고 應舉시기까지 후반기 2내지 3년간으로 구분하였다.¹⁰⁾

讀書分年日程에 따른 독서내용을 보면, 먼저 제 1단계인 8세 입학전에는 세속의 千字文 대신 性理絕句 100首를 읽도록 하였다. 徐命瑞는 입학전의 시기를 句讀 및 字書단계로 구분하였으며, 古人은 8세에 입학하였으나 今人은 8세에 이미 物化를 知誘하니 반드시 5, 6세에 학문을 시작해야 한다고 고금의 차이를 지적한 바 있다.

제 2단계인 8세 입학후는 6, 7년의 공을 들여 15세전에 小學, 四書 諸經의 正文을 모두 마치는 것을 목표로 小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孝經, 易, 書, 詩, 儀禮 및 禮記, 周禮, 春秋의 순으로 독서할 것을 정하였다.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徐命瑞의 誦讀단계와 비교하면, 晚翁의 선정도서목록에서 字書를 비롯해 史略, 綱目, 家禮, 太極圖西銘, 古詩, 古文, 類集, 時文, 外家 등을 더 찾아볼 수 있다.

제 3단계인 15세 志學이후 25세이전의 應舉시까지의 다시 3단계로 세분하여 전반기의 독서내용은 四書五經의 註와 或文 및 性理諸書에 국한하고, 四書五經이 이미 밝혀진 중반기부터는 通鑑과 韓文, 楚辭 및 각종 制度書를 겸하여 읽고, 이후 후반기에는 作文을 배워 韓文法, 全集 등을 읽고 科擧에 필요한 古賦, 制誥, 表章, 策을 보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程端禮의 제 3단계 분년일정은 晚翁의 독서단계 중 세번째 단계인 講貫의 시기에 해당한다. 양자 사이의 독서내용을 비교하면 도서목록 상의 개별적인 차이는 적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같은 주제범주의 도서를 열거하고 있다.

10) 程端禮, 讀書分年日程 3卷 (欽定四庫全書 子部1 儒家類)

결국 晚翁의 독서단계론과 程端禮의 讀書分年日程은 독서단계의 전개 및 필독서목록의 주제에 있어 근본적으로 양자가 동일한 이념과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독서연령의 구분과 필독서의 선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徐有渠는 그의 저술에서 讀書分年程式을 다루었는데, 이는 程端禮의 讀書分年日程을 요약한 것이다.¹¹⁾ 李德懋는 讀書分年日程 3권은 程端禮가 朱子 독서법에 의거 작성하여 배우는 이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朱子가 그 강령을 말했고 程端禮가 유목을 상세하게 만들었으니, 그대로 따라 공부에 진력한다면 성왕의 학문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는 육봉기의 말을 그의 저록에서 인용한 바 있다.¹²⁾ 晚翁이 활동하던 당시 程端禮의 讀書分年日程이 조선 유학자에게 주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晚翁이 독서단계론을 정리함에 있어서 程端禮의 讀書分年日程을 충분히 참고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程端禮의 8세 입학이전의 독서단계와 晚翁의 6세 입학이전의 句讀 및 字書단계 간의 유사성은 그 한 예라 하겠다.

3. 陸世儀의 讀書三節

清의 陸世儀는 元의 程端禮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독서할 책을 연령에 따라 열거해 놓은 학자이다. 陸世儀는 太倉人으로서 字는 부정이며, 저술로는 師友問答 및 평생견문을 劄記한 思辨錄輯要 35권이 있다. 그는 그의 저록 讀書三節에서 독서할 책을 3단계로 나누어 배우는 이들이 이에 따라 공을 들이면 조정 또한 이로 인해 선비를 시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¹³⁾

독서의 3단계를 살펴보면, 陸世儀는 먼저 독서의 제 1단계를 5세부터 15세까지

11) 徐有渠, 林園十六志 93 遊藝志 卷 1 讀書法

12) 李德懋, 甯莊館全書 卷 55 齋業記 2

13) 陸世儀, 思辨錄集要 卷 4 格致類 (欽定四庫全書 子部 30 儒家類)

10년간으로 한정하고 이 시기의 독서를 誦讀이라 이름하였다. 이 기간동안의 독서 내용은 小學을 비롯해 四書五經, 周禮, 太極通書西銘, 綱目, 古文, 古詩, 各家歌訣을 들었다. 이 중 문공의 小學은 자못 번잡하니 節韻幼儀를 편할까 한다고 하였는바, 晚翁이 句讀단계에서 小學은 난잡하니 본인이 초편한 古語屬韻爲幼讀 4編으로 대신한다는 것도 陸世儀의 뜻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독서의 제 2단계는 15세부터 25세까지의 10년간으로 정하고 이 때를 講貫의 시기로 이름하였으며, 독서내용은 四書五經을 비롯해 周禮, 性理, 綱目, 本朝事實, 本朝典禮, 本朝律令, 文獻通考, 大學衍義衍義補, 天文書, 地理書, 水理農田書, 兵法書, 古文, 古詩로 정하였다. 晚翁의 독서 제 3단계에 해당하는 시기로 도서주제 또한 일치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선정도서목록에 있어 조선제도서가 중국제도서의 자리를 매김했을 정도이다.

讀書三節의 마지막 단계는 25세부터 35세까지의 10년간으로 이를 涉獵이라 이름하고, 독서내용은 四書五經, 周禮, 諸儒語錄, 21史, 本朝實錄 및 典禮律令諸書, 諸家經濟類書, 諸家天文, 諸家地理, 諸家水利農田書, 諸家兵法, 諸家古文, 諸家詩로 정하였다. 講貫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晚翁의 독서 제 4단계와 대동소이한 주제범주 및 선정도서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본다면 결국 晚翁의 독서단계론은 근본적으로 陸世儀의 讀書三節을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陸世儀의 思辨錄輯要가 晚翁의 필독서목록에 선정된 바 있고, 또한 陸世儀가 이미 15세 이전에는 목록에 물들지 않고 지식도 미개한 상태로 多記性 少悟性이나, 15세 이후에는 그 반대로 多悟性 少記性이라고 정의한 바를 晚翁이 그의 저술에서 그대로 인용한 사실에서 더욱 분명하다.

그러나 晚翁이 독서단계론 전개함에 있어서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독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조선문헌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방대한 목록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陸世儀의 독서단계론을 보다 발전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栗谷과 牛溪의 讀書次第

栗谷 李珣는 學校模範 16條를 만들어 배우는 자가 마땅히 좃아 행할 바를 정하였는데, 그 중 세번째가 바로 독서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서 栗谷은 독서의 차서는 모름지기 小學을 먼저 배워 그 근본을 배양하고, 다음에는 大學과 近思錄으로써 그 규모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論語, 孟子, 中庸과 五經을 읽고, 史記와 선현의 性理書를 간간히 읽어 뜻을 넓히고 식견을 정밀하게 하며, 성인이 짓지 않은 글은 읽지 않고 무익한 글은 보지 말 것을 언급하였다.¹⁴⁾

栗谷의 독서론은 독서의 의의 및 방법, 독서의 순서를 논하고 있는 擊蒙要訣의 제 4장 讀書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 栗谷은 독서의 순서에 있어서 먼저 小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經, 禮經, 書經, 周易, 春秋의 5書 5經을 둘러가면서 읽고, 송나라 때의 유가들이 지은 近思錄, 家禮, 心經, 二程全書, 朱子大全, 朱子語類와 같은 서적과 그 밖에 성리학설을 틈틈이 정독하며, 남은 힘으로는 역사서를 읽어 고금의 역사적 사건의 변천을 통달하여 식견을 기를 것이되, 잠시라도 이단이나 잡되고 옳지 못한 서적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릇 독서를 하되 반드시 책 한 권을 선택하면 숙독하여서 뜻을 모두 알아 통달하여 의심이 없게 된 후에 다른 책으로 바꿔 읽을 것이요, 다독에만 힘을 써서 이것저것 바빠 읽어서는 안됨을 지적하였다.¹⁵⁾

牛溪 成渾은 독서란 課程을 定立하여 熟讀精思하고,¹⁶⁾ 循序 漸進해야 한다¹⁷⁾고 하였으며, 특히 鄭宗溟에게 보내는 서신¹⁸⁾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신이 뛰어난 자는 博取하고, 기가 쇠한 자는 節約해야 한다는 程子の 말을 인용하

14) 李珣, 栗谷集 雜著 學校模範

15) 上揭書, 擊蒙要訣 第 4章 讀書

16) 成渾, 牛溪先生集 卷 6 書示姜生晉昇

17) 成渾, 牛溪先生續集 卷 6 書贈河生緯坤

18) 成渾, 牛溪先生集 卷 5 與鄭士朝宗溟書

며, 별지에 마땅히 읽어야 할 책을 적고 그 가운데 心經 이상은 모두 節約해야 할 책이라고 말하였다.

그 별지에 수록한 도서들이 바로 牛溪가 선정한 필독서목록으로 小學, 大學, 大學或文, 論語, 孟子, 中庸, 中庸或文, 近思錄, 朱子書節要, 心經, 詩, 書, 易, 春秋, 禮記, 二程全書, 朱子大全, 伊洛淵源錄, 延平答問, 理學通錄, 通鑑綱目, 續綱目, 皇明通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栗谷과 牛溪의 도서목록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初學者를 대상으로 유가의 경전 및 성리제서의 독서를 권러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선정도서의 양도 소략하여 晚翁의 목록과 비교할 바는 못된다. 그러나 晚翁이 그의 圖說 중 持身圖에서 栗谷의 擊蒙要訣과 牛溪의 書室儀를 들고 있고, 讀書圖의 讀序에서도 역시 栗谷과 牛溪의 독서차제를 인용한 바 있다. 그러므로 晚翁의 독서단계론이 조선의 先儒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이들의 독서차제론에서 영향받은 바 크다 하겠다.

IV. 朝鮮 當代 儒學者의 讀書次第論과의 差異

1. 林象德의 讀書次第와 讀書規模

老村 林象德(1683-1719)은 숙종년간의 학자로 관직은 大司諫에 이르렀다. 그는 선비가 학문에 뜻이 있으면 독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독서함에 있어서는 먼저 규모를 識得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람이 배우지 않으려면 그만이지만 배우려고 한다면 당연히 먼저 小學을 읽고, 다음 大學 論語 孟子를 읽은 연후에 詩經 書經 中庸 易經을 통하고, 左傳 國語 綱目을 旁究해야 한다고 독서규모에서 밝혔다.¹⁹⁾

老村은 독서단계 및 필독선정도서를 小兒와 幼學으로 구분하여 보다 상세히 기

19) 林象德, 老村集 卷 4 雜著 讀書規模

술하였다. 그는 을미년에 저술한 小兒讀書次第에서 어린이는 먼저 字學 수천자를 교수한 연후에 小學과 孝經, 論語, 孟子 및 여타 경사서적 중 윤리에 긴절한 문자를 별도로 하나의 소책자로 꾸며 가르치고, 그런 다음 唐音五言絶句 100여수를 가르치고, 다음으로 孝經, 小學과 漢魏六朝盛唐의 五言古詩 65句, 短篇 100여수를 가르쳐 性情이 바르게 되고 文理가 배풀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司馬遷의 史記 중 列傳 15, 16편 정도와 李白의 五言 및 七言古詩, 唐音, 七言 100편을 읽고 나서 史略을 가르친 다음, 비로소 大學에 들어가고 論語, 孟子, 詩傳, 中庸과 書傳을 가르친 다음에는 韓文 選文精髓와 古文眞寶 後集을 旁讀하고, 杜甫, 韓愈의 長篇과 楚辭, 離騷 및 選賦를 兼誦케 하였다.

한편 幼學의 독서 규모에 대해서는 먼저 小學을 읽고 나서 大學에 들어가고, 다음 論語 孟子 中庸 순으로 읽되, 이 때 近思錄, 心經을 틈이 나는대로 같이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詩經과 書經을 보는데 이상의 서적은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순환해서 봐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經書를 이미 숙독한 다음에는 左氏傳, 戰國策, 綱目, 宋朝名臣錄을 읽고, 다음으로 選文精髓, 古文眞寶後集, 韓柳歐蘇의 文章과 楚辭, 選賦, 李白, 杜甫의 시를 읽되 또한 列子, 莊子 등 제자백가의 서적은 旁閱토록 권유하였다.

이상과 같은 老村 독서단계론의 특징은 무엇보다 독서자를 小兒와 幼學의 두 연령층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필독서 독서순차를 열거한 점이다. 小兒의 독서에 있어서는 문자해독 및 문리의 터득과 아울러 유교적 윤리관의 확립을 중시하고, 幼學의 독서규모에 있어서는 경사자집의 독서순서나 필독도서목록이 小兒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나, 제자백가서를 필독서로 선정하고 천착의 정도를 달리 한 것이 독서내용 상의 두드러진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老村의 독서차제 및 규모는 晚翁의 경우와 우선 필독도서의 규모 면에서 비할 바는 아니며, 독서단계의 구분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다만 小兒단계에서 字

學과 文理터득을 위한 교재의 선정은 晚翁의 句讀 및 字書단계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2. 黃德吉의 讀書次第圖

下廬 黃德吉(1750-1827)은 정조 순조년간의 학자로 順菴 安鼎福에게서 사사하였으며 여러 저술을 남겼다. 그는 독서관 반드시 먼저 循序를 정하고 이에 일치하도록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⁰⁾

下廬의 독서차제도를 살펴보면, 독서순서는 우선 先讀 次讀 兼看的 세 단계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필독서명을 열거하고 있다. 근본을 바로 세우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先讀은 小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近思錄 및 李子粹語, 心經, 家禮의 순이며, 쓰임을 다하는 데 의미를 두는 次讀은 書傳, 詩傳, 周易 및 啓蒙, 禮記 및 周禮, 儀禮, 通解, 春秋 및 三傳, 二程全書, 朱子大全 및 語類, 伊洛淵源錄 및 理學通錄, 性理大全의 순이고, 변화를 달통하는 데 의미를 두는 兼看은 綱目 및 續綱目, 資治通鑑 등 編年史, 歷代正史, 東國諸史, 文章의 正宗으로 楚辭 등 諸家書의 순으로 필독서를 적고 있다.

일찌기 順菴은 그의 저술 讀書之序에서 述而不作으로 栗谷의 擊蒙要訣과 程端禮의 讀書分年法, 歐陽公의 讀書法을 인용한 바 있는데,²¹⁾ 黃德吉의 독서차제도는 스승인 順菴의 독서차서론에 충실한 것으로 대체로 栗谷의 독서차제론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下廬의 독서차제론을 晚翁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선 下廬가 先讀 次讀 兼看的 3단계로 구분한 독서단계론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한 晚翁의 독서단계론과는 달리 도서의 주제 및 독서의의에 따라 구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 黃德吉, 下廬先生文集 卷 8 雜著 讀書次第圖并說

21) 安鼎福, 下學指南 上卷 讀書 第 1 讀書之序章

필독도서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晚翁의 경우에 비해 작을 뿐 아니라, 제자 백가서 및 문장류의 경우 개별서명의 기입조차 생략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下廬가 역사서에 있어서 東國諸史의 兼看을 명기한 것은 다수 先儒의 예에 견주어 의미있는 일이다.

3. 姜必孝의 讀書次第

海隱 姜必孝(1764-1848)는 晚翁보다 약 반세기 후의 인물로 관직은 都事에 이르렀다. 그는 牛溪와 栗谷이 지은 바 있는 독서차서 및 明齋의 畫一圖를 모방하여 學塾의 諸生에게 참고가 될 독서차제를 저술하였다.²²⁾

海隱은 유생들의 독서순서에 대해서 먼저 孝經을 읽은 다음, 小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經, 禮經, 書經, 易經, 周禮, 春秋 등과 같은 爲學正法書를 순서대로 읽고, 둘째로 心經, 近思錄, 太極通書, 二程全書, 東西銘, 朱子大全 등을 읽으며, 셋째로 儀禮經傳, 性理大全, 名臣言行錄, 孔子通記, 家語, 左傳, 國語, 語類, 大學衍義 등을 속독하고, 넷째로 史記, 三漢書, 通鑑, 綱目, 續綱目 등을 읽고, 다섯째로 老子, 莊子, 管子, 楊子, 董子, 孔叢子, 文中子, 邵子の 8대가와 事文類聚 등을 깊이 留意함이 없이 汎觀하고, 마지막으로 唐宋의 名集과 本朝 제 선배의 文集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볼 것을 말하였다.

海隱 독서차제의 특징은 무엇보다 儒家의 經傳과 性理諸書, 歷史書, 諸子百家書, 文集의 순으로 독서순서를 정하되, 각각 서적의 가치에 따라 독서의 방법도 熟讀과 汎觀과 역량에 따른 尋看으로 구분한 점이다.

海隱이 이와 같이 독서의 순서를 정하고 필독서를 선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옛부터 전해져 오는 서적은 무궁하나 사람의 정력은 한계가 있으니, 朱子の 말대로

22) 姜必孝, 海隱遺稿 卷 10 雜著 讀書次第

잡서를 읽음으로써 자칫 정력이 분산됨을 우려한 까닭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시각은 海隱 뿐만 아니라 당시 유학자들에게서 일반화된 것으로 그들의 독서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海隱의 필독도서목록은 그 작성시기가 조선 후기로서 이미 상당히 축적된 조선 先儒의 문집을 다수 필독서로 선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후기 유학자 가운데에서는 이미 茶山 丁若鏞이 礪溪隨錄, 西厓集, 星湖僊說, 懲忿錄, 白沙集, 梧里集, 五峯集, 梧陰集, 月汀集, 月沙集, 漢陰集, 谿谷集, 芝峯集, 鷺渚集, 李忠武全書, 紫巖集 등 개별서명을 열거하며 모두 독서에 긴요한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²³⁾

海隱의 독서차제를 晚翁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선 독서차제의 대상연령이 晚翁경우의 제 2, 3단계에 해당하는 청소년 및 청년층에 한정되어 있고, 주제범주에 있어서 비록 경사자집서를 두루 언급은 하였으나 유가경전 및 성리학서를 제외하고는 도서목록의 구체적인 열거가 크게 부족하다.

V. 結 言

晚翁 徐命瑞가 전개한 독서단계론 및 필독서목록을 중국 및 조선 학자의 경우와 비교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晚翁 徐命瑞의 독서론은 조선후기 여타 유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朱子와 栗谷을 비롯한 중국 및 조선 先儒의 독서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둘째, 晚翁은 독서단계를 독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句讀 및 字書, 誦讀, 講貫, 涉獵, 經學의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陸世儀 讀書三節을 바탕으로 하되 程端禮의 讀書分年日程 등을 참고하여 보완 발전시킨 것이다.

23)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 1集 卷 21 寄淵兒(戊辰冬), 寄兩兒

셋째, 晚翁은 儒家의 기본 경전 및 성리제서, 역사서, 문장류를 비롯해 조선 先儒의 저술 및 각종 실용도서, 外家의 문헌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필독서목록을 작성하였다.

넷째, 晚翁의 독서단계론은 그 전개방식에 있어서 老村, 下廬, 海隱 등 조선후기 학자의 독서차제론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필독서목록의 경우 그 규모가 보다 방대하고 체계적이다.

이상과 같이 晚翁 徐命瑞는 비록 先儒의 독서론을 모방하였지만, 당대 유학자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이론적 독서론의 범주를 벗어나 실천적인 독서단계론을 전개하고 독자적인 필독서목록을 작성하였다. 晚翁은 실로 실용성과 주체성 있는 독서를 권러하고 독서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독서학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新元史.

元史.

姜必孝. 海隱遺稿.

黎靖德 編. 朱子語類.

徐命瑞. 晚翁集.

徐有渠. 林園十六志.

成 渾. 牛溪先生集.

牛溪先生續集.

安鼎福. 下學指南.

陸世儀. 思辨錄集要.

李珥. 栗谷集.

林象德. 老村集.

張立文. 朱熹思想研究. 中和, 谷風出版社, 1986.

程端禮. 讀書分年日程.

丁若鏞. 與猶堂全書.

朱熹. 朱子大全.

黃德吉. 下廬先生文集.

金相模. “朝鮮朝 儒學者의 讀書傾向.” 國會圖書館報. 208호(1990. 3).

金泳. “李德懋의 讀書論.” 東方學志. 36·37집(1983. 6).

“丁茶山の 讀書觀.” 江原大學校 論文集. 15집(1981).

沈暉俊. “下學指南에 나타난 順菴의 讀書觀.” 韓國學. 19집(1978. 12).

尹炳泰. “澤堂 李植과 그의 讀書觀.” 도협월보. 19권 10호(1978. 12).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ADING PROCESS OF SŎ MYONG-SŎ

Sang-ho Kim*

Historical study on the reading in Chos ŏn has been mostly focussed on few scholar's viewpoint of reading. This research has revealed the reading process of SŎ Myong-SŎ , and has compared it with the reading process of other scholar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followings have been clarified.

a. SŎ Myong-sŏ reorganized the reading process of Yuk Se-ui, divided it into the five steps, and made the systematic reading program.

b. SŎ Myong-sŏ made the list of selected books which included not only confucian literature, but also taoist, buddhist, and practical.

c. Sŏ's reading process and selected booklist were different in system and scale from other's ; Im Sang-dŏk, Hwang Dŏk-gil, and Kang P'il-hyo.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ae Gu University